

# 목포시 '수산식품 도시' 속도 낸다...수출단지 하반기 착공

### 해수부 수산식품 클러스터 1호 사업 선정...2000억 생산유발효과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해조류 상품 개발 박차...덴마크 기관 협업

목포시가 '수산식품 도시'로 도약을 내걸고 전남 해조류의 해외 판로를 넓히기 위한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올해 하반기 착공한다.

목포시는 해양수산부 '수산식품클러스터 1호 사업'의 하나인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수출단지는 목포 대양산단에 사업비 1150억원을 들여 조성한다.

부지 2만8133㎡(8510평), 연면적 4만6616㎡,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전남 수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수출까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임대형 가공 공장과 마른김 거래소, 연구시설, 냉동·냉장창고, 수출 지원 시설 등이 들어선다.

수산식품 수출단지에 신규 투자를 유치할 목표 기업은 모두 36개사이다.

이를 통해 2154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1978억원 상당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목포시 측은 내다봤다.

목포시는 김 산업을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으로 삼고 수산식품 연구·개발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 지원센터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제1호 김 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대양산단에 조성되는 수출단지 외에도 목포시는 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및 특화단지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산업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마른김 거래소, 수산식품 김 박람회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목포 수산식품 지원센터는 고부가가치를 지닌 김 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해수부 지원을 받아 차세대 간편 식품과 세대별 맞춤형 수산식품, 수출 전략 식품 등에 대한 제품·가공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국내산 미발용 어류를 발굴해 어묵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올해는 해조류를 첨가해 상품 차별화를 꾀했다.

목포시는 지난해부터 덴마크의 해조류 연구·개발(R&D) 기관과 손잡고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주한 덴마크 외교부 소속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 디테 린더 바이써 센터장이 덴마크 해양수산 창업자들과 목포 수산식품 지원센터를 찾았다.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는 우리나라와 덴마크 간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주로 과학기술과 혁신, 고등교육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목포 수산식품 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두



목포시가 올해 하반기 대양산단에 착공할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감도.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목포 수산식품 지원센터' 전경. <목포시 제공>

센터는 해조류 연구 협업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해 6월과 9월에는 한국-덴마크 해조류 교류 협력 화상 간담회를 열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덴마크 대사관 초청으로 덴마크 국립공과대학 식품연구소와 북유럽 해조류 콘퍼런스를 찾기도 했다. 올해 1월에는 주한 덴마크 대사관에서 김 등 해조류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덴마크 등 다양한 국가, 기관과 교류해 우리나라 김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통해서 세계로 나가는 제1의 수산식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 임직원과 덴마크 해양수산 창업자들이 지난 7일 목포 수산식품 지원센터에서 '해조류 연구개발 간담회'를 가졌다. <목포시 제공>



완도군의 '해양인명구조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올해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됐다. 해양 인명구조 요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완도군 제공>

## 완도군 '해양인명구조 인력 양성' 전남형 일자리 사업 선정

### 40여명 대상 5~10월 교육·훈련...안전요원·강사 등 취·창업 지원

완도군이 추진하는 '해양인명구조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올해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됐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은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교육, 취업 연계,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각 지역에 최적화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 육성과 남해안 신성장 관 광벨트 구축,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 등에 필요한 해양 인명구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번 공모

에 참여했다.

전남형 일자리사업 선정에 따라 완도군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지역의 미취업자와 예비 창업자 40여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160시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해수욕장 안전요원, 수상 레저시설 스낵스쿠버 강사 등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스낵스쿠버 교육체험장, 스낵스쿠버습 등 수상레저분야 창업도 지원한다.

오는 5월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열면 많은 관광객들이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등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완도군은 수상 안전을 책임질 전문 인명구조 요원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수행 기관은 해양구조단 완도지역대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지역에 꼭 필요한 해양 인명구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양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관광,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진도 쌀, 대기업 간다

### 한화그룹 식자재 업체에 연 20t

진도 쌀 20t이 대형 식품기업에 납품된다.

진도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한화그룹 식자재 업체인 ㈜푸드스트에 연간 20t(5억원 상당) 납품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진도 '명품쌀' 20kg 1000가마가 이 업체에 납품되기 시작했다. <사진> 푸드스트는 한화그룹 급식 식자재 업체로 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연말 진도 선진농협과 ㈜한화건설, ㈜푸드스트는 지역 농산물 납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다.

진도에서 생산된 쌀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면 서 쌀 농가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진도군은 내다봤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생산 과잉과 소비 부진 등으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과, 구기자, 울금 등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대형식품기업에 납품하고 협력 관계를 견고히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해남군 긴급복지 연료비 월 4만원 인상

### 1~3월·10~12월 15만원씩

해남군이 긴급복지 연료비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긴급복지 연료비는 1~3월, 10~12월 동절기에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생계, 주거 지원을 받는 긴급지원 대상 가구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일반재산 농어촌 기준 1억3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 지원은 162만200원, 주거 지원은 25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300만원 이내 의료지원을 받고, 부가급여로 교육급여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에 놓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 소득 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해남군청 복지정책과(061-530-5307)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런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위기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다종이로 나만의 이야기책 만들어요

### 신안 저녁노을미술관 초등생·성인 무료 교육...오늘부터 접수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이 오는 18일부터 4월16일까지 주말 교육 '한지랑, 나랑'을 운영한다.

신안에 거주하는 초등학생과 성인이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신청은 10일부터 선착순 접수(061-240-5441)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수업 재료도 미술관에서 마련한다.

'한지랑, 나랑' 수업에서는 다종이와 식물 재료를 나만의 이야기책을 만들 수 있다.

김수진 작가가 강사로 나서 다종이 제작 방법 등을 소개한다. 김 작가는 중국 칭화대학 학

사와 같은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상하이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안군 국제 장작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토요일에는 초등학생 10명 대상으로 5회차 수업을 진행한다. 일요일에는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5회차 수업을 한다.

미술관은 오는 5-6월 '마음의 평화 보태니컬 아트'와 7-8월 '우리가 그리는 신안 풍경' 등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은 다도해의 아름다운 5000만평 광활한 바다정원과 1004섬보재 공원 등을 즐길 수 있는 미적 체험 공간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영광군 '음식 폐기물 처리기' 최대 80% 지원

### 17일까지 신청 접수

영광군이 오는 17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설치금액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용 처리기는 최대 56만원까지 100대 지원한다.

다량 배출 사업장은 최대 1600만원까지 2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 감량기기는 가열·건조, 발효, 발효·건조, 미생물 발효, 부숙 등의 방식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는 기기이다.

단 싱크대에 부착하는 오물분쇄기는 제외된다.

환경 분야 인증과 품질검사, 단체표준, K 마크 등 하나 이상 인증이 있는 제품이라면 설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 금액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대폭 늘렸다.

영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라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지원사업은 가정과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천 감량해 환경오염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는 제품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 90% 이상 감량할 수 있다"며 "편리성은 물론, 친환경적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지원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환경과(061-350-5343)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이중수 기자 jyilee@kwangju.co.kr